

경제

‘비정규직법’ 발효 한달 ... 지역 산업계는

‘소리없는 해고’ 늘어간다

광주·전남 129명 일자리 잃어 실직률 57%나

정부는 실태 파악 못하고 정치권은 ‘우왕좌왕’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 제한 조항이 발효된 지 30일로 한 달이 되면서 지역 노동계에서는 ‘조용한 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정치권은 정책 방향조차 정하지 못한채 소모적 논쟁만 거듭하고 있어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가 ‘비정규직 고용 변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법이 발효된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전국에서 모두 4천944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같은 기간 동안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광주지방노동청 관할 사업장에서는 228명이 계약(2년)이 만료돼 이 가운데 43.4%인 99명만이 정규직

으로 전환됐다. 반면 절반이 넘는 129명이 일자리를 빼앗겨 실직률이 56.6%에 달했다.

문제는 노동청의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영세 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 대신 해고되는 근로자 수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재정적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계약 해지 날짜가 도래하는 대로 소규모로 해고하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의 경우 지난달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 2명을 계약해지 방식으로 해고했고 올 말까지 해고 대상에 포함되는 비정규직만 10여명이다.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도 현재까지 7명에 대한 고용 계약을 해지했다.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고속도로 정비반 20여명도 올 말로 예정된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광주보훈병원을 비롯, 지역 중소 병원에서의 비정규직

해고도 잇따르고 있다.

해고가 속출하자 노동청 등 관계기관이 나서 근로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해고하는 등 편법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의 시행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책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들

의 고용 안전성 보장 및 임금 격차 해소,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 하남산단내 전자부품업체 대표 김모(56)씨는 “비정규직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정규직 전환보다는 해고를 택하는 기업이 많다”며 “지원책이 없다면 기업 입장에서라도 인건비 부담이 큰 정규직 전환을 선택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아 준대형 신차 ‘VG’ 공개

기아자동차는 올해 말 출시 예정인 준대형 신차 ‘VG(프로젝트명)’의 렌더링 이미지를 29일 공개했다. VG의 외관 디자인은 지난 4월 서울모터쇼에서 공개돼 호평을 받은 컨셉트카 KND-5의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며 “빛을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 활용해 ‘빛과 선의 조화’를 추구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자동차는 올해 말 출시 예정인 준대형 신차 ‘VG(프로젝트명)’의 렌더링 이미지를 29일 공개했다. VG의 외관 디자인은 지난 4월 서울모터쇼에서 공개돼 호평을 받은 컨셉트카 KND-5의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며 “빛을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 활용해 ‘빛과 선의 조화’를 추구한 것이 특징이다.”



맛·멋 잇든 우리 버섯

전시회는 다음달 7일까지 계속된다.

29일 경기도 수원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에서 열린 ‘맛과 멋이 잇든 우리 버섯 전시회’를 찾은 어린이들이 국내에서 자생하는 야생버섯들을 만져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상의 ‘싱크탱크’ 만든다

교수·오피니언 리더 등 경영자문위 구성키로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싱크탱크를 구성한다.

박흥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29일 “지역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 이뤄진 경영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광주상공회의소 3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 경제의 구심점 역할 강화 및 지역 기업의 실질적 경영성과

향상 등을 위해 경영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영자문위원회는 지역 주요 대학 교수와 오피니언 리더, 연구기관 연구원, 지역 내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주요 인사 등 20여명으로 구성되며, 다음달부터 공식적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비롯,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중소기업 및 회원 기

업들에 대한 경영 자문 및 지도·상담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경영자문위원회가 지역 기업들의 국내와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최신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회장은 4개월 넘게 공식인 상근 부회장 선임 문제와 관련, “최근 마음이 둔 인물은 부회장을 마다하고, 하려는 사람들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 선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한조선 정상화 ‘젠걸음’

18만DWT급 벌크선 2척 건조의향서 체결

대한조선의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대한조선은 “최근 서울지사에서 마셜 아일랜드(Marshall Islands)계 선사와 대한조선의 주력선종인 18만DWT급 벌크선 2척에 대한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각각은 적당 7천만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현재 180K 벌크선의 국제 신조 선가가 6천만달러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가격이다.

이번 건조의향서 체결은 지난 6월 참가한 ‘2009 노르쉬핑(Nor-Shipping)’에서 건조 의향을 접수 받은 뒤 약 1개월간의 계약조건 협상 끝에 이뤄진 것이다.

대한조선측은 “선박은 선주측의 요구로 기존 성능에 경제성이 한층 향상된 고급 사양이 반영됐으며 조만간 정식계약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선박 수주로 2011년 상반기 건조물량까지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실적 호전 지앤알 ‘콧노래’

2분기 매출 122억·영업이익 19억 기록

광주지역 상장업체인 지앤알은 29일 지난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22억원과 19억원을 기록해 전기대비 15%와 4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의료기제조 자회사의 손실처분이 반영되면서 순이익은 5억원을 기록하며 소폭 감소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전년동기대비로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상반기 전체적으로는 227억원의 매출과 32억원의 영업이익, 10

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지앤알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태양광발전시스템 전문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한데다 체계적인 원가관리가 더해지면서 실적이 크게 호전됐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과 이스라엘 등 해외사업 확대와 함께 현재 시공중인 태양광발전시스템 매출이 증가로 반영될 경우 올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유지는 물론 실적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금호그룹株 동반 하락

실질 지배사인 금호석화만 소폭 올라

금호아시아나그룹 관련주들이 대우건설 매각 불확실성에 박한구·박삼구 회장의 동반 퇴진이라는 말발박수에 휘말리면서 동반 하락했다. 현재간 부란의 시발점이 된 금호석화화는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엇갈리면서 주가가 크게 출렁였다.

2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금호산업이 6.80% 급락한 1만3천700원에 거래를 마친 것을 비롯해 금호타이어(-4.44%), 대우건설(-2.33%), 아시아나항공(-1.78%) 등 대부분의 그룹

관련주들은 약세를 면치 못했다.

반면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회사인 금호석화화학(1.11%)은 장중에는 12.38%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로 상승폭을 내주며 소폭 상승에 그쳤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련주들의 동반 약세는 박한구·박삼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함에 따라 경영권 공백 등 그룹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증권시장에서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관련주들은 장기적으로 대우건설

매각 등 구조조정과 유동성 문제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박삼구 회장과 지분경쟁을 벌이다 28일 금호석화화학 회장에서 전격 해임된 박한구 회장의 대응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Table with market data: 코스피지수 1,524.32 (-1.71), 코스닥지수 501.57 (-2.59), 금리 (국고채 3년) 4.17% (+0.01), 원·달러 환율 1,239.90원 (+3.40)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자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대금리서비스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 최고수익률 / 세무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미래의 가치를 창조하는 수완 코리아랜드 공인중개사 사무소. 062)236-3400. 062)951-6800. H.P. 010-3666-8949. 수완 지구. 수완 롯데마트 옆. 팰리스타워빌딩 (분양임대중) 중앙메디컬빌딩. 상업용지, 점포, 원룸용지 매매임대. 아파트 분양권 매매, 임대. “급”매물접수,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대인동삼일부동산. 010-223-1140, 0210-811-602-2532.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남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연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